하늘을 향해 닻을 쏴라

(예레미야 48:1~47)

11.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찌끼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
12.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술을 옮겨 담는 사람을 보낼 것이라 그들이 기울여서 그 그릇을 비게 하고 그 병들을 부수리니
13. 이스라엘 집이 벧엘을 의뢰하므로 수치를 당한 것 같이 모압이 그모스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리로다
14. 너희가 어찌하여 말하기를 우리는 용사요 능란한 전사라 하느냐
15. 만군의 여호와라 일컫는 왕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모압이 황폐하였도다 그 성읍들은 사라졌고 그 선택 받은 장정들은 내려가서 죽임을 당하니
16. 모압의 재난이 가까웠고 그 고난이 속히 닥치리로다
17. 그의 사면에 있는 모든 자여, 그의 이름을 아는 모든 자여, 그를 위로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강한 막대기, 아름다운 지팡이가 부러졌는고 할지니라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하늘을 향해 닻을 쏴라>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하늘을 향해 닻을 쏴라'
유다 주변의 이방 10개국에 대한 예레미야의 예언을 이해하기 위한 키워드는 휩쓸림입니다. 45장에서 예레미야를 통해 서기관 바룩에게 주셨던 예언의 말씀 중에 발견할 수 있었던 표현입니다. 휩쓸림이라는 단어가 직접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룩이 땅에 휩쓸리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대한 주권적 통치를 해나가실 때에 그것이 심판이든 축복이든 선민은 마음이 휩쓸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땅에서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마음을 드려야만 합니다. 그러면 선민의 삶은 하늘 기운이 내려오는 저수지가 되고 이윽고 이 하늘 기운은 주변으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모습이 선민에게서 이루어지기를 꿈꾸셨는데 정작 선민이 땅에 휩쓸림으로써 하나님의 꿈은 좌절되고 맙니다.

이렇게 선민이 땅에 휩쓸리게 된 결과로 유다 주변의 이방 10개국도 멸망하게 되는데 앞서 애굽의 멸망과 이스라엘의 회복 그리고 블레셋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서 회복이 예언 된 이스라엘은 북 왕국 이스라엘을 칭하는 것이 아니라 남과 북으로 갈라지기 전의 선민 전체를 뜻하는 말로서 사용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모압에 대한 멸망 예언이 나타납니다.
애굽과 블레셋에 대한 예언은 선민의 마음이 땅에 휩쓸리게 되는 대표적인 두 가지의 이유를 상징하는 대상들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애굽은 세상 사람들이 간절히 갖고 싶어 하는 가치를 상징합니다.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은 모든 가치들의 집결지와 같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블레셋은 나와 인접한 사람들을 의미했습니다. 나와 인접한 사람들에게 마음이 휩쓸리는 동안 하늘을 향할 수 없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모압의 멸망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모압은 이 세상에 있는 가치와 인접한 사람들에게 휩쓸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간단히 말해 휩쓸린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본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박목월 시인의 “나그네”라는 시를 떠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나루 건너서
밀밭 길을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길은 외줄기
남도 삼백리

술 익는 마을마다
타는 저녁놀

구름에 달 가듯이
가는 나그네

이 시에서 백미가 되는 구절이라면 2연과 5연에서 반복되는 ‘구름에 달 가듯이 / 가는 나그

네’라는 부분일 것입니다. 실제로 움직이는 것은 구름이지만 달이 간다고 뒤집어 표현하고 있습니다. 달도 움직입니다만 달과 구름이라는 대상만의 관계로 한정해서 바라보자면 달은 멈춰있고 구름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구름에 달 가듯이’라고 표현함으로써 나그네가 느끼는 정취를 잘 살려내고 있습니다.
나그네는 달이고 남도의 삼백리 길 곳곳에 있는 술 익는 마을은 구름인 셈입니다. 실제로는 달로 비유되고 있는 나그네가 구름으로 비유되는 남도 삼백리 길, 술 익는 마을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길을 가는 것은 나그네이지만 나그네의 한껏 부풀은 감정에서는 마치 마을이 자신을 찾아오는 것처럼 반갑게 여겨졌던 것입니다.
달로 비유된 나그네는 멈춰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구름으로 비유된 술 익는 마을들이 나그네의 발밑을 지나가게 됩니다. 박목월 시인은 문학적 감수성으로 이를 뒤집어서 표현했지만 실제 선민의 삶은 바로 달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지 궁금합니다.
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는 장면을 상상해봅니다. 나는 기차에 타서 가만히 멈춰있는데 발밑으로는 경부선이 계속 지나가게 됩니다. 그러다보면 이윽고 부산에 도달하게 됩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뛰어가며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여정이 내 발 밑에서 지나가는 것이 선민에게는 가능합니다. 반면 선민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세상을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휩쓸림입니다.

이렇게 땅에 휩쓸려 사는 사람들의 삶을 두 단어로 구분해보자면 희망봉과 닻이 떠오릅니다. 망망대해를 항해하던 배가 항구에 정박하게 되면 묵직한 쇠갈고리를 바닥에 떨어뜨려 고정시킵니다. 희망봉은 상징적으로 말 그대로 기쁨과 만족이 있는 곳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희망봉으로 항해해서 닻을 내리려는 삶을 살아갑니다. 삶에서 가장 안정적인 삶의 환경을 추구하고 또 이루어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안정적인 삶의 조건을 구축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땅에 휩쓸려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반면 선민은 ‘구름에 달 가듯이’라는 말이 본래 의미하는 대로 달은 멈춰있고 구름이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달은 선민이고 구름은 세상입니다. 나그네인 선민이 달처럼 고정되어 있으면, 남도 삼백리 길이 발밑으로 지나가며 술 익는 마을들이 찾아오는 것처럼 세상이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선민이 땅에 휩쓸리지 않는 달처럼 되기 위해서는 마음이 하늘에 닻을 내려야만 합니다. 배가 바다 깊은 곳으로 닻을 내리듯이 선민들은 하늘 높은 곳으로 닻을 쏘아 올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에 마음의 닻을 쏘고 정박하는 동안에 삶의 여정이 발밑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삶의 내용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움직여 가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형통이라고 부를만한 상황이든 불통이라고 부를 만한 상황이든 상관할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하늘을 향해 닻을 쏜 뒤에 정박해 있으면 됩니다.

기차를 타고 가는 중에 점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차와 내가 따로 놀아서 기차만 앞으로 가지는 않습니다. 이미 나는 기차와 같은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점프를 해도 뒤로 밀리지 않고 같은 자리에 떨어집니다. 기차와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한편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기차 지붕에서 악당들과 혈투를 벌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때에 헬기가 주인공을 구하러 오고, 주인공은 헬기가 내려주는 줄을 붙잡는 순간 기차와의 거리가 확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헬기에 비유하고 기차를 세상에 비유한다면 하나님을 붙잡는 순간 세상이 발밑으로 지나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 부자 되기가 이루어질수록 세상을 이길 힘은 강해집니다. 세상을 이기는 것은 곧 세상과 상관없이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로만 기뻐하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땅의 일들은 헬기 밑으로 기차가 지나가듯이 지나가고, 고정된 달 아래로 구름이 지나가듯이 하나님의 계획들이 진행되어 나가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3차에 걸친 전도여행을 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전했습니다. 타인에게 전할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닌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사도 바울의 마음에 닻이 되어서 하늘에 고정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의 발밑으로 로마 제국을 움직이셨고 결과적으로는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기반이 다져지게 되었습니다.
요새 스마트폰의 지도 기능을 보면 나의 위치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도를 마음대로 움직여 가며 지리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마음을 십자가에 고정시켜둔 상태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지도를 움직이시듯이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터키를 지나 그리스 지방까지 그리고 지중해를 거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는 바울의 여정에 관여하시며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압을 통해 전해주시는 말씀의 의미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모압은 이 땅에서 마음이 휩쓸린 사람들의 가장 전형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모압은 지리적으로 요단강 동쪽 끝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사해가 있는 요단강 동쪽 끝은 유다에서는 남동쪽에 위치한 지역이었습니다. 모압 땅의 대부분은 고산지대였습니다. 그러나 특이하게도 고산지대임에도 평지가 있었고 풍부한 수자원에 기반을 둔 아름다운 포도원으로 유명했습니다. 고산지대였기 때문에 외적으로부터의 침입도 없었습니다.
본문 11절에서는 이러한 모습을 잘 익은 술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남 왕국 유다나 북 왕국 이스라엘은 계속 전쟁에 시달렸기 때문에 술을 충분히 익힐만한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압은 외적의 침입을 받은 일이 없었기에 포도주를 담가서 오랜 세월동안 숙성시킬 여유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모압 땅의 멸망이 예언됩니다. 일찍이 이사야도 모압에 대한 예언을 할 때에 포도원으로 비유했었습니다. 이사야 16장 10절을 보면 “즐거움과 기쁨이 기름진 밭에서 떠났고 포도원에는 노래와 즐거운 소리가 없어지겠고 틀에는 포도를 밟을 사람이 없으리니 이는 내가 즐거운 소리를 그치게 하였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모압 백성들의 삶이 부유하고 안정적이었으며 그로 인해 기쁨을 누리고 있었으나 사라지게 될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예레미야도 ‘네가 네 업적과 보물을 의뢰하므로 너도 정복을 당할 것이요’라고 하였고 앞서 보았던 11절에서도 ‘모압은 젊은 시절부터 평안하고 포로도 되지 아니하였으므로 마치 술이 그 찌끼 위에 있고 이 그릇에서 저 그릇으로 옮기지 않음 같아서 그 맛이 남아 있고 냄새가 변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하였던 것처럼 모압 백성이 안정되고 부유한 삶을 살았음이 드러납니다. 32절에서도 ‘십마의 포도나무여 너의 가지가 바다를 넘어 야셀 바다까지 뻗었더니 너의 여름 과일과 포도 수확을 탈취하는 자가 나타났으니 내가 너를 위하여 울기를 야셀이 우는 것보다 더하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십마는 모압의 북부 지방으로써 이들의 힘과 부유함이 대단했으나 결국 탈취를 당하게 되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이 의미하는 것은 땅에 휩쓸린 자들의 결과입니다. 애굽은 탐낼만한 세상의 가치를 상징했습니다. 블레셋은 인접한 사람들을 상징했습니다. 이것을 갖는 것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들의 꿈입니다. 그런데 모압은 이러한 조건을 갖춘 나라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특이하게도 ‘교만과 자만’이라는 단어가 반복됩니다. 모압의 태도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이 땅에서 안정된 조건을 갖추었다고 여기며 만족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안정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조건을 구축하려는 마음이 문제인 것입니다. 불가능한 일을 시도하기에 교만한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되고 싶어 하는 직업이 문과는 판검사나 변호사이고 이과는 의사라고 합니다. 이러한 직업을 꿈꾸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정감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안정적으로 여겨지는 직업이 판검사와 변호사이며 의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박해서 닻을 내릴만한 상황을 찾는 심리가 직업 선택에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며 바라셨던 삶은 결코 세상에 닻을 내리는 삶이 아니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지 않으므로 이 땅에서 좋고 나쁨을 판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스스로 좋고 나쁨을 판단할 수 없다면 안정됨을 구축하려는 동기자체가 생기지 않습니다. 적어도 좋고 나쁨을 판단할 때에 추구하거나 피하려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생각하신 사람의 희망봉은 지구 표면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적으로 미래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희망봉은 위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하늘에 닻을 쏘고 정박하는 배와 같은 삶을 살도록 지음 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삶은 발밑에서 지나가게 되어있었

습니다.
서로를 의지하고 살라고 부부가 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가 각자 하늘을 향해 닻을 쏘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정박시킬 때에 각자의 발밑에서 부부의 삶이 진행되어 갑니다. 오히려 서로에게 마음을 정박시키려고 할 때에 부부의 삶은 복잡하고 힘들고 괴로워 집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닻을 내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부딪히고 힘듭니다. 부모가 해야 하는 일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마음의 닻을 쏘고 정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화에서 헬기에 매달린 주인공 밑으로 기차가 지나가는 것처럼 자녀의 일들이 부모의 발밑으로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상황을 진행시켜 나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압과 같은 삶을 살기를 추구합니다. 고산지대에서 풍부한 수자원으로 포도를 키우고 평지에서는 여름 과일이 풍성한 안정된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땅에 마음이 휩쓸린 사람들의 희망봉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교만한 행동이기에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민들이 해야 하는 일은 이러한 모압에게도 모범을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고산지대라 외적이 없고 물이 풍부해서 포도농사가 잘 되고 여름 과일이 풍성한 환경에 닻을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선민들은 외적의 침입을 많이 받았고 포도농사도 모압처럼 잘되지는 않았지만, 그럼에도 하늘에 닻을 쏘아서 땅의 삶은 하나님께서 진행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줬어야 했습니다. 설령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해도 선민의 삶은 제시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선민들은 이러한 삶을 살기는커녕 모압을 본받아 세상에서 안정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땅의 휩쓸린 자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선민들이 망하게 된 이유였고 선민이 망하자 모압도 구원의 가능성을 아예 잃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닻을 쏘아서 이 땅의 삶은 발밑에서 하나님이 진행시키는 대로 살았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땅에 휩쓸려서 살아가니 함께 망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도 삶은 진행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구름에 달 가듯이'라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박목월 시인은 시적인 감수성을 위해 뒤집어 표현했지만 우리는 달과 구름의 실제 모습을 삶에서 살아가면 됩니다. 달은 고정되어 있고 구름이 가면 됩니다. 술 익은 마을이 있는 남도 삼백리 길이 나그네의 발밑을 지나가게 하면 됩니다.
사도 바울의 3차에 걸친 전도 여행이 그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짊어지고 다님을 통해 십자가가 바울의 닻줄이 되었습니다. 이 닻줄로 하늘에 정박해 있는 동안 바울의 발아래에서 로마 제국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짊어지고 다녀야 할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과 함께 계신 예수님께 도달하는 동선을 닻줄 삼아서 하늘에 정박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에 정박한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당신의 마음을 나누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시기에 하나님을 갖는 것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부자가 되어서 새롭게 기쁘고 새롭게 만족함을 누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의 삶을 발밑에서 움직여 가실 것입니다.
이때에 삶의 내용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든 안 되는 것처럼 보이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마음이 휩쓸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늘에 닻을 쏜 상태로 정박해 있으면 됩니다.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며 땅에 대해서 죽고 하늘에 정박하기를 날마다 반복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 생활화입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의 삶이 핸드폰에서 지도를 검색하듯이 우리 발밑에서 움직이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박목월 시인도 알지 못했던 이런 신나는 삶을 꼭 경험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만나든 사건을 만나든 내가 죽었음을 고백하면 그 사건과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내 발밑에서 진행되어 갈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사도 바울처럼 십자가 생활화에 목숨을 걸고 하늘에 정박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순간순간 하늘을 향해 닻을 쏘고 정박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인생 여정이 발밑에서 진행되게 하시므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